

보도시점 : 2026. 9. 22.(화) 11:00 이후(9. 23.(수) 조간) / 배포 : 2026. 9. 22.(화)

APEC 교통장관회의서 AI·스마트 모빌리티 미래협력 제안 나선다

- 22일 베이징에서 제12차 APEC 교통장관회의 참석... 미래교통 협력 논의
- 우리나라 스마트 모빌리티 성과 공유... 스마트 모빌리티 협력 확대 제안

□ 국토교통부는 9월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「제12차 APEC 교통장관회의*(TPTMM12)」에 교통물류실장(박재순)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여 회원경제들과 미래 교통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.

*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21개 회원경제의 교통분야 고위급이 모여 주요 교통 정책 방향 및 협력방향 모색

- 이번 회의에서는 AI·자율주행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의 디지털 전환과 역내 연결성 강화,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교통체계 및 공급망 구축 등을 중심으로 아시아·태평양 지역의 교통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.

□ 우리나라 대표단은 본회의에서 AI·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우리 교통혁신 사례를 소개하고, 회원경제 간 스마트 모빌리티 협력 확대를 제안하였다.

- 광주광역시 전역을 활용한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과 자율주행·수요응답형 교통(DRT) 연계 서비스, 전국적인 ITS 인프라와 하이패스, AI·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물류 등 디지털 기술을 실제 교통·물류 현장에 적용한 정책사례를 소개하였다.

- 또한 디지털 교통체계의 연결성이 높아지는 만큼 데이터 활용·보호, 사이버보안, 기술표준과 안전기준 등 새로운 거버넌스 과제에 대한 회원경제 간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,

-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APEC 스마트 모빌리티 포럼을 통해 정책·기술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.

- APEC 교통실무그룹(TPTWG) 김배성 의장은 본회의에서 TPTWG의 주요 성과를 소개하였다.
 - TPTWG는 그간 의장의 리더십 아래 회원경제 간 의견을 조율하여 스마트 모빌리티 권고문을 마련하고, 기존 4개 전문가그룹을 통합·개편하는 한편 교통연구전문가그룹(EGTR)을 신설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해왔다.
 - 이를 통해 유사·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교통수단별 논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교통 이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하였다.
- 대표단은 베이징 이창 자율주행 시범구를 방문하여 완전 무인 로봇택시와 자율주행 버스 등 실제 도로에서 운영 중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살펴보고, 실증·상용화 과정의 운영체계와 안전관리 사례를 국내 자율주행 정책에 참고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“디지털 혁신의 목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, 혁신기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로 연결하는 데 있다”면서,
 - “기술 발전과 함께 데이터, 안전기준, 기술표준 등 제도와 거버넌스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”며, “우리나라의 실증 경험과 정책을 회원경제와 적극 공유하고, APEC 스마트 모빌리티 포럼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래교통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기획조정실 국제협력통상담당관	책임자	담당관	정송이 (044-201-4563)
		담당자	사무관	지현근 (044-201-3295)
		담당자	주무관	이지선 (044-201-3294)
	교통물류실 교통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안광열 (044-201-3804)
		담당자	사무관	류나린 (044-201-3791)



□ 개 요

- APEC 교통장관회의(TPTMM)는 APEC 회원경제의 교통분야 장관·고위급이 참여하여 아시아·태평양 지역의 주요 교통현안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역내 교통협력을 모색하는 고위급 회의
- 항공·육상·해운 등 교통 전반을 대상으로 연결성 강화, 교통안전, 지속가능한 교통, 신기술·디지털 전환, 공급망 회복력 등 역내 공동 관심사항을 논의

□ 운영체제

- 장관회의 산하에는 APEC 교통실무그룹(TPTWG, Transportation Working Group)이 있으며, 회원경제의 교통분야 정책·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발굴·추진
- TPTWG에서 논의·추진된 주요 성과와 향후 협력방향 등을 장관 회의에서 공유하고, 회원경제 간 교통분야 정책방향과 협력 의지를 공동선언문 등을 통해 제시

□ 제12차 APEC 교통장관회의(TPTMM12)

- (일시·장소) '26. 9. 22.(화) / 중국 베이징
- (참석) APEC 21개 회원경제 교통분야 장관·고위급 대표 등
- (주요 논의) AI·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통혁신, 역내 연결성 강화,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교통체계 구축 등

참고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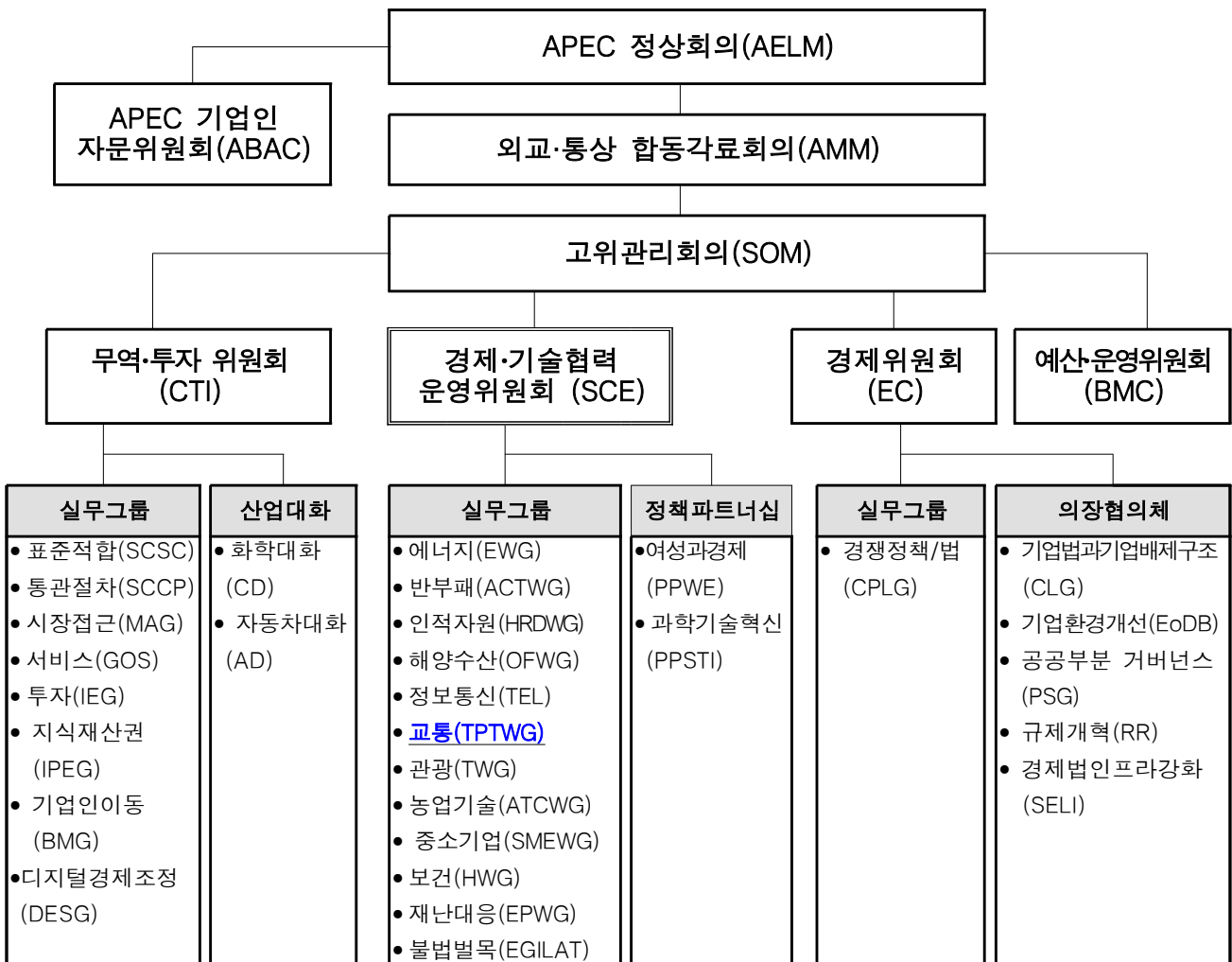
APEC 및 TPTWG(교통실무그룹) 개요

□ APEC(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) 개요

- (목적) 환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경제협력 증진, 1989년 출범
- (회원경제) 21개국

아시아 (12개국)	한국, 중국, 일본, 대만, 홍콩, ASEAN 7개국* * 싱가포르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베트남, 태국, 필리핀, 브루나이
미주 (5개국)	미국, 캐나다, 멕시코, 페루, 칠레
대양주 (3개국)	호주, 뉴질랜드, 파푸아뉴기니
기타 (1개국)	러시아

○ (APEC 조직)



* 2026년 APEC 정상회의 및 교통장관회의는 중국에서 개최 예정

□ TPTWG(Transportation Working Group)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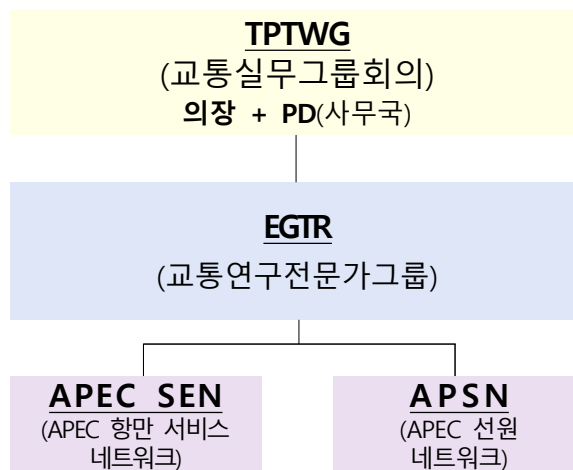
○ (회의명) APEC 교통실무그룹회의

* 역내 교통문제 해결, 발전방향 협의, APEC 교통장관회의 지시사항 이행 등을 위한 실무기구로서 1991년 창설, 연 2회 개최(상반기 영상회의, 하반기 대면회의)

○ (참석자) 21개 APEC 회원경제 교통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 등

○ (구 성) 1개 전문가그룹, 2개 산하 네트워크*

* Port Service Network (중국 소재) / Seafarers' Excellence Network (한국 부산 소재)



① TPTWG (Transportation Working Group)

: 역내 교통분야 최상위 협의체로 정책방향 조율, 공동프로젝트 승인 및 산하 전문가 그룹(EGTR 등) 활동 총괄 및 조정 업무 수행

② EGTR (Expert Group on Transportation Research)

: 교통분야의 규제·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실무그룹으로 회원경제간 안전, 표준, 인증 등 교통관련 이슈에 대한 공동 연구 및 협력 추진

③ APSN (APEC Port Services Network (중국 소재))

: 역내 항만간 협력 강화를 위한 항만 중심 협력 플랫폼으로 스마트 항만, 물류 효율성 제고, 디지털화 등과 관련한 협력 추진

④ APEC SEN (APEC Seafarers' Excellence Network (한국 부산 소재))

: 해운 및 선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협력 네트워크로 선원교육·훈련, 자격인정, 선원안전 및 복지 향상 관련 정책 협력 추진